

수산화알루미늄 시장 난립양상

삼성물산 · ALCOA 결별 ... 가격 바닥세 고려금속 영업난항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기업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93년6월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ALCOA산을 판매했던 삼성물산이 ALCOA와 결별하고 8월부터 AUSTASWISS산을 수입 · 판매하게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산 및 일본산 등을 수입 · 판매하는 국내 고려금속, 럭키금속, 중원화학 등이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이후 톤당 220~230달러선에서 93년 5월말 120~140달러선으로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화알루미늄 가격이 한차례 더 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삼성물산이 수입 · 판매하는 AUS-TASWISS산이 톤당 20달러정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사들의 판매가격 인하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며, 업체간의 수산화알루미늄 가격경쟁은 오는 94년초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일본산(쇼와전공, 스미토모 등에서 수입)은 엔고현상이 지속돼 가격경쟁력이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삼성물산과 ALCOA와의 결별은 ALCOA의 가격인상조치가 예상된데다 양사의 입장이 대립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ALCOA의 에이전트인 고려금속이 자체 영업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수입 현황을 보면

수산화알루미늄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M/T, 1000달러)			
구	분	1992		1993(1~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	본	85,244	14,331	46,778	8,762
A	U	44,559	6,145	218,966	3,378
중	국	5,109	719	12,124	1,792
독	일	1,847	1,252	723	645
기	타	390	471	595	600
합	계	137,149	22,918	279,186	15,177

90년 10만765톤에서 91년 12만262톤으로 19.3% 증가했으며, 92년에는 13만7149톤으로 92년대비 14.0% 늘어났다.

또 93년 1~7월 현재는 27만9185톤으로 1517만7000달러어치가 수입됐다.

92년 수입량 13만7149톤 가운데는 일본 8만5244톤으로 62.2%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4만4559톤으로 32.5%, 중국 5109톤으로 3.7%를 보였다.

9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21만8966톤이 수입돼 78.4% 비중을 보였으며, 일본 4만6778톤으로 16.8%, 중국 1만2124톤으로 4.3%를 차지했다.

한편, 수산화알루미늄(화학식 $Al(OH)_3$)은 수처리제인 반토용(황산알루미늄)에 80%, 세제원료인 제올라이트에 16%, 유리충진제 · 치약연마재 등에 8% 가량 사용되고 있는데 수산화알루미늄 가격하락으로 인해 PAC 및 황산반토업체들이 덤핑구입과 다시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3/10/25>